

# 대학생의 구강위생용품 관리실태에 따른 구강건강인식도

## Oral Health Awareness According to Actual Condition of Oral Hygiene Products Management of College Students

오나래\*, 정미애\*\*  
영남외국어대학 치위생과\*, 강원대학교 치위생학과\*\*

Na-Rae Oh(nalae761@hanmail.net)\*, Mi-Ae Jeong(teeth2080@kangwon.ac.kr)\*\*

### 요약

본 연구는 대구·경북에 소재하는 대학생 222명을 대상으로 구강위생용품 관리실태에 따른 구강건강인식도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p < 0.05$ ). 연구대상자가 사용하는 칫솔이 2개인 남성은 43명(19.4%), 여성은 50명(22.5%)이었고( $p = 0.047$ ), 전공계열은 문과인 대상자는 칫솔을 2개 사용하는 대상자가 18명(8.1%)로 이과전공대상자 75명(33.8%)으로 차이를 나타냈다( $p < 0.001$ ). 칫솔을 휴대하지 않는 대상자 중 남성은 72명(32.4%), 여성은 46명(20.7%)로 남자가 휴대하지 않는 대상자가 많았고( $p < 0.005$ ), 이과계열 대학생이 휴대하는 대상자는 83명(37.4%), 문과 대학생의 경우 21명(9.5%)으로 나타났다. 구강건강인식도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3.031배였고( $p < 0.001$ ), 전공계열이 이과인 집단이 문과인 집단에 비해 2.57배였다( $p < 0.001$ ). 칫솔을 살균하는 하지 않는 대상자는 살균하는 대상자에 0.459배로 구강건강인식도가 낮았다( $p < 0.05$ ). 우리나라의 대학생의 구강보건정책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해 객관적 구강건강상태만을 지표로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구강건강인식도가 구강건강상태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학적 변수, 구강건강에 관한 변수의 효과까지 반영하는 만큼 다양한 구강건강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연구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 중심어 : | 대학생 | 구강위생용품 | 구강건강인식도 |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oral health perception according to the actual condition of oral hygiene products management in 222 college students in Daegu and Kyungbuk province ( $p < 0.05$ ).

The subjects in the study were 43 men (19.4%) and 50 women (22.5%) with two toothbrushes ( $p < 0.05$ ), and the major subjects were 2 tooth brushes. The subjects were 18 (8.1%) and 75 subjects (33.8%) were subjects of science major ( $p < 0.001$ ). Among the subjects who did not carry a toothbrush, 72(32.4%) were male and 46 (20.7%) were female. The number of subjects who did not carry the male was higher ( $p < 0.05$ ). The subjects were as follows: 83 (37.4%), and 21. Oral health awareness was 3.031 times higher than that of male ( $p < 0.001$ ), and the major group was 2.57 times higher than that of the general population ( $p < 0.001$ ). Subjects who did not sterilize the toothbrush had 0.459 times lower oral health perception ( $p < 0.05$ ). In order to establish and evaluate the oral health policy of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only the objective oral health status is used as an index. However, it is necessary to study and reflect the variables affecting oral health awareness as much as the oral health awareness reflects not only oral health condition but also socioeconomic variables and the effect of variables on oral health.

■ keyword : | College Students | Oral Hygiene Devices | Perceived Oral Health |

\* 본 연구는 2017년도 강원대학교 회계 학술연구조성비로 연구하였습니다.(관리번호20170146)

접수일자 : 2018년 06월 20일

심사완료일 : 2018년 06월 28일

수정일자 : 2018년 06월 28일

교신저자 : 정미애, e-mail : teeth2080@kangwon.ac.kr

## I. 서론

구강질환으로 대표되어지는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은 한번 발생된 후에는 악화과정을 지속적으로 겪는 전형적인 만성질환이다[1]. 또한 구강건강은 전신건강의 일부이며, 구강건강상태가 사회적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2]. 구강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강상병의 발생요인중의 대표적인 환경요인인 치면세균막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3]. 구강 내 치면세균막을 조절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올바른 칫솔질을 권장하며 칫솔질만으로 치간 부위의 치면세균막을 완벽히 제거할 수 없으므로 대상에 따라 적합한 구강관리용품을 사용하여 치아의 전체적인 청결과 치은마사지 등의 효과로 높일 수 있다[4].

현대생활에서 실내생활보다 실외활동생활 양상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칫솔의 휴대가 칫솔질 및 구강위생관리의 접근성과 시행률을 높일 것이며, 특히 대학생의 시기는 사회 외무활동양상이 증가되어지는 성인 초기로써 이 시기에 정착되는 구강건강행위가 성인의 전반적 구강위생행위의 기반이 된다. 그런데 대학생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시기가 되면서,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지며, 부주의한 관리태도를 가지기 쉬워, 부정적인 구강건강행태의 올바른 수정이 필요하다[5].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일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인식을 조사한 결과 구강건강관심도가 낮으며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매우 낮다고 보고하였다[6].

구강보건정책 및 구강보건사업은 아동·청소년·노인으로 생애주기별 관리되어지고 있으며 장애인 및 취약계층까지 구강보건정책을 폭넓게 편성되어 있다[7]. 하지만 청소년기를 이제 막 벗어난 대학생들은 통상적인 성인구강보건사업이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성인기 구강보건사업에서 속하지 않아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은 구강보건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진다[8].

대학생들은 고등학교의 규칙적인 일상생활에서 보다 많은 자율적인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음주와 흡연에 노출되는 경향이 많아진다[9]. 또한 현대사회의 대학생들

은 취업 및 학업에 대한 과중한 부담감으로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기가 어렵다[10]. 하지만 대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사회진출을 하게 되며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기반인력이 될 뿐만 아니라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게 되며 또한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서 위생관리 행태에 많은 영향을 미칠 후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에 대한 구강보건의식 및 구강위생행태가 중요하다[11].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생은 대상으로 하는 국가 구강보건정책이나 정기적인 구강건강관련 교육이 없는 실정이며 청소년기에 형성된 구강건강관련 지식으로 구강위생관리가 향상 및 지속되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강위생용품의 대표적인 칫솔과 세치체에 관한 대학생들의 휴대 및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구강위생용품 관리실태에 영향을 주는 영향요인과 구강건강인식을 파악하여 대학생들에게 체계적인 국가 구강보건사업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7년 4월 1일부터 1개월 간 대구·경북에 소재한 4개의 대학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조사목적과 취지 및 방법을 설명하고 자발적 연구 참여 동의를 한 학생 230명을 비확률 표본추출법인 편의추출법에 의거해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결측치가 있거나 설문에 불충분하여 신뢰성이 의심되어지는 설문지 8부를 제외한 총 222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 2.2 연구방법

설문조사는 선행연구[12][13]의 항목을 참조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일반적인 특정 6문항, 구강위생용품사용실태 10문항, 구강보건인식도는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강보건인식의 응답범위는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부여하였으며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구강보건의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강보건

인식의 신뢰도 계수는 전체문항 Cronbach's  $\alpha=.892$ 로 조사되어 모든 항목들이 수용할만한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Table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	구분	N	%
성별	남성	120	54.1
	여성	102	45.9
학년	신입생	116	52.3
	재학생	106	47.7
전공	인문	30	13.5
	자연	73	32.9
	보건	85	38.3
주거형태	예체능	34	15.3
	자택	89	40.1
월 지출금액 (만원)	그외	133	59.9
	30미만	32	14.4
	30-39	77	34.7
	40이상	113	50.9
총		222	100.0

### 2.3 통계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WIN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구강위생용품 관리실태는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위생용품 관리실태 차이는 교차분석을, 일반적 특성과 구강위생용품 관리실태에 따른 구강건강인식도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와 One-way ANOVA, 사후 검증은 Scheffe검증을 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구강위생용품 관리실태의 구강건강인식도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정을 위한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총 222명 중 남성은 120명(54.1%), 여성이 102명(45.9%)이며, 신입생 116명(52.3%), 재학생 106명(47.4%)이었다. 연구대상자의 대학교 전공은 인문계열 30명(13.5%), 예체능계열 34명(15.3%), 자연계열 73명(32.9%), 보건계열 85명(38.3%)

이 응답하였다[Table 1]. 대학생들의 주거상태는 자택에서 통학을 하는 경우는 89명(40.1%)이며, 그 외에 거주하는 재학생은 133명(59.9%)였다. 대상자들의 월 지출금액을 조사한 결과 30만원 미만인 대상자는 32명(14.4%)이었고, 30-39만원은 77명(34.7%), 40만원 이상은 113명(50.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3.2 연구대상자의 구강위생용품 관리실태

연구대상자의 구강위생용품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용하고 있는 칫솔의 수는 1개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129명(58.1%), 2개는 93명(41.9%)으로 조사되었다. 칫솔을 휴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유, 무 조사결과 휴대하는 대상자는 104명(46.8%), 휴대하지 않는 대상자는 118명(53.2%)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휴대하는 칫솔의 보관 장소는 가방에 보관하는 대상자가 69명(31.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사물함2명(9.0%)이었다. 칫솔의 세척 방법은 칫솔모를 문질러 행군 후 건조시킨다는 응답이 95명(42.8%)로 가장 많았고, 물로 행군 후 건조시킨다는 응답자가 68명(30.6%)이었다. 사용하는 칫솔의 보관방법은 껍에 꽂아둔다는 응답자가 115명(51.8%), 걸어둔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73명(32.9%)이었다. 사용하는 칫솔의 교체하는 주기는 1달이 83명(37.4%)로 가장 많았으며, 3달이상이라고 답한 대상자는 75명(33.8%)이었다. 칫솔을 살균하는 대상자는 37명(16.7%)로 나타났으며, 살균을 하는 방법으로는 살균기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16명(7.2%)로 나타났으며 칫솔질 할 때 사용하는 세치제 사용 방법은 물을 묻이지 않는 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120명(54.1%), 칫솔질할 때 사용하는 세치제의 양은 칫솔모의 2/3길이를 사용하는 대상자가 94명(42.3%), 칫솔모의 1/3길이를 사용하는 대상자는 71명(32.0%)로 조사되었다[Table 2].

### 3.3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인식도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가장 인식도가 높은 항목은 “구강보건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가 4.15점 이었고 다음은 “칫솔질은 간식 후에 해야 한다” 4.11점으로 조사되었다.

Table 2. 연구대상자의 구강위생용품 관리실태

항목	구분	N	%
사용하는 칫솔 수	1개	129	58.1
	2개	93	41.9
칫솔휴대 유무	휴대한다	104	46.8
	안한다	118	53.2
휴대용 칫솔 보 관장소	가방	69	31.1
	사물함	20	9.0
	기타	15	6.8
개인사물함 유무	사용	138	62.2
	사용안함	84	37.8
칫솔세척방법	물로만 헹굼	26	11.7
	물로헹군 후 건조	68	30.6
	칫솔모를 문지름	30	13.5
	칫솔모를 문지른 후 건조	95	42.8
	그 외	3	1.4
칫솔 보관장소	화장실	162	73.0
	가방	8	3.6
	서랍	5	2.3
	책상위	28	12.6
칫솔보관방법	그 외	19	8.6
	컵에 꽂아둠	115	51.8
	걸어둠	73	32.9
칫솔교체주기	살균기	21	9.5
	그 외	13	5.9
	1달	83	37.4
칫솔살균유무	2달	64	28.8
	3달이상	75	33.8
살균방법	한다	37	16.7
	안한다	185	83.3
	전자레인지 사용	2	0.9
	살균기 사용	16	7.2
세치제사용방법	소금물 사용	6	2.7
	그 외	13	5.9
세치제 사용 양	물 물인다	102	45.9
	안 물인다	120	54.1
	1/3	71	32.0
총	2/3	94	42.3
	3/3	57	25.7
	총	222	100.0

Table 3.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인식도

항목	Mean	± S·D	순위
1. 구강보건을 위해 정기적인 구강검진이 필요하다.	3.87	± 0.895	9
2. 구강보건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4.15	± 0.790	1
3. 올바른 칫솔질 방법은 잇몸병을 예방할 수 있다.	4.07	± 0.867	3
4. 칫솔질은 식사 후에 해야한다.	3.67	± 0.986	14
5. 칫솔질은 간식 후에 해야한다.	4.11	± 0.916	2
6. 칫솔질은 취침전에 해야한다.	3.96	± 0.974	4
7. 충치는 잘못된 칫솔질 습관 때문에 생길 수 있다.	3.95	± 0.940	5
8. 잇몸병은 치태(플라그) 및 치석 때문에 생긴다.	3.94	± 0.854	7
9. 스켈링은 정기적으로 필요하다.	3.93	± 0.970	8
10. 충치 예방을 위해서는 스켈링을 해야한다.	3.75	± 0.854	13
11. 잇몸병 예방을 위해 스켈링을 해야한다.	3.78	± 0.970	11
12. 칫솔 이외에도 구강위생용품은 필요하다.	3.81	± 0.1.01	10
13. 구강보건에 관한 정보에 관심이 많다.	3.25	± 1.00	15
14. 불소를 함유한 식수나 치약은 충치예방에 도움이 된다.	3.75	± 1.11	13
15. 자신의 치아와 잇몸상태에 따라 칫솔을 선택해야 한다.	3.95	± 0.870	6
구강건강인식도 평균	3.86	± 0.59	

구강건강인식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구강보건에 관한 정보에 관심이 많다”로 3.25점이었고, 다음으로 낮은 항목은 “칫솔질은 식사 후에 해야 한다” 3.67점으로 조사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구강건강인식도의 평균 점수는 3.86점이었다[Table 3].

### 3.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위생용품 관리실태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위생용품 관리실태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사용하는 칫솔이 2개인 남성은 43명(19.4%), 여성은 50명(22.5%)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타났고(p<0.05), 전공계열은 문과인 대상자는 칫솔을 2개사용하는 대상자가 18명(8.1%)로 이과전공대상자 75명(33.8%)과 차이를 나타냈다(p<0.01). 일반적 특성 중 대상자의 주거지 유형 중 사용하는 칫솔질 개수가 1개인 대상자 중 자택에 주거하는 대상자는 44명(19.8%), 자택에 거주하지 않는 대상자중 칫솔을 1개 사용하는 대상자는 85명(39.3%)로 차이가 나타났다(p<0.05).

연구대상자의 칫솔 휴대하는 유무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조사결과 휴대하지 않는 대상자 중 남성은 72명(32.4%), 여성은 46명(20.7%)로 남자가 휴대하지 않는 대상자가 많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전공계열에 따른 조사결과는 이과계열 대학생이 휴대하는 대상자는 83명(37.4%), 문과 대학생의 경우 21명

Table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위생용품(칫솔) 관리실태

구분	사용 칫솔수		x <sup>2</sup> /P	칫솔 휴대 유무		x <sup>2</sup> /P	칫솔 살균 유무		x <sup>2</sup> /P	칫솔교체 주기		x <sup>2</sup> /P
	1개	2개		함	안함		함	안함		2달	이상	
남성	77(34.7)	43(19.4)	3.938/	48(21.6)	72(32.4)	4.917/	15(6.8)	105(47.3)	3.265/	74(33.3)	46(20.7)	2.417/
여성	52(23.4)	50(22.5)	0.047*	56(25.2)	46(20.7)	0.031*	22(9.9)	80(36.0)	0.103	73(32.9)	29(13.1)	0.120
신입생	69(31.1)	47(21.2)	0.189/	51(23.0)	65(29.3)	0.810/	19(8.6)	97(43.7)	0.014/	74(33.3)	42(18.9)	0.638/
재학생	60(27.0)	46(20.7)	0.664	53(23.9)	53(23.9)	0.368	18(8.1)	88(39.6)	0.904	73(32.9)	33(14.9)	0.425
문과	46(20.7)	18(8.1)	7.001/	21(9.5)	43(19.4)	7.113/	11(5.0)	53(23.9)	0.018/	39(17.6)	25(11.3)	1.120/
이과	83(37.4)	75(33.8)	0.008**	83(37.4)	75(33.8)	0.008**	26(11.7)	132(59.5)	0.895	108(48.6)	50(22.5)	0.290
자택	44(19.8)	45(20.3)	4.587/	43(19.4)	46(20.7)	0.129/	22(9.9)	67(30.2)	6.936/	58(26.1)	31(14.0)	0.073/
그외	85(38.3)	48(21.6)	0.032*	61(27.5)	72(32.4)	0.720	15(6.8)	118(53.2)	0.008**	89(40.1)	44(19.8)	0.787
40만원이하	66(26.7)	43(19.4)	0.525/	46(20.7)	63(28.4)	1.856/	19(8.6)	90(40.5)	0.090/	71(32.0)	38(17.1)	0.111/
40만원이상	63(28.4)	50(22.5)	0.469	58(26.1)	55(24.8)	0.173	18(8.1)	95(42.8)	0.764	76(34.2)	37(16.7)	0.739

\*p<.05 \*\*p<.01

(9.5%)로 조사되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용하는 칫솔의 살균유무 차이를 조사한 결과 자택에서 주거하지 않는 대상자가 칫솔을 살균하지 않는 경우가 118명(53.2%)로 높게 나타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Table 5. 구강건강인식도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 특성과 구강위생용품 관리실태

구분	OR	95% CI	p
성별 (남:0 여:1)	3.031	1.829-5.025	0.000**
학년 (신입생:0 재학생:1)	0.944	0.604-1.474	0.799
전공 (문과:0 이과:1)	2.570	1.508-4.381	0.001**
주거형태 (자택:0 그 외:1)	0.587	0.367-0.938	0.026*
월 지출금액 (40만원미만:0, 40만원이상: 1)	1.284	0.820-2.011	0.275
칫솔수 (1개:0 2개:1)	1.387	0.878-2.190	0.161
칫솔휴대 (휴대:0 안함:1)	0.617	0.390-0.976	0.039*
칫솔살균 (살균 함:0 안함:1)	0.459	0.244-0.861	0.015*
칫솔교체 (2달미만:0 3달이상:1)	0.700	0.435-1.128	0.143
세치제 양 (모1/3:0 모2/3이상:1)	0.830	0.513-1.340	0.445

\*p<.05 \*\*p<.01 by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 3.5 구강건강인식도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 특성과 구강위생용품 관리실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 특

성과 구강위생용품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성별, 전공, 주거형태, 사용하는 칫솔 수, 칫솔의 살균 유무가 유의확률 0.05 미만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이 여성일 때 구강건강인식도가 증가하며, 남성에 비해 3.031배였고(p<0.001), 전공계열이 이과인 집단이 문과인 집단에 비해 2.57배였다(p<0.001). 주거형태는 자택에서 주거하지 않는 집단이 자택에 주하는 집단에 비해 구강건강인식도가 0.587배 낮았으며(p<0.05), 칫솔을 휴대하지 않는 집단이 휴대하는 대상자에 비해 0.617배 낮았다(p<0.05). 칫솔을 살균하는 하지 않는 대상자는 살균하는 대상자에 0.459배로 구강건강인식도가 낮았다(p<0.05).

### 4. 고찰

대학생은 사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역군이며, 이 시기는 인생의 가치관을 더욱 정교하게 확립하며, 고도의 지식을 습득하고 미래의 직업을 갖기 위한 준비기간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대학생의 구강건강은 원활한 학업수행을 가능하게 하며, 건강한 신체와 심리적인 자신감을 갖게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14].

대학생은 구강진료 이용의 주체이자 의존자이고 유년기나 소년기의 경험은 물론 청소년기의 경험과 통합되어 있으며, 추후의 구강보건행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지고 있다[15].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완숙된 시기인 성인 초기에 있는 대학생 시절에 정착된 건강습관은 성인기 건강

한 삶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에 반해 스스로의 건강을 자신하여 무관심과 부주의한 태도를 갖기 쉬워 성인 중기나 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습관이 확고히 형성되지 않아 건강행위의 수정 필요성이 큰 시기이다. 이를 위해서는 구강보건인식과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지금까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구강건강인식에 관한 연구로는 단순히 칫솔질의 횟수와 시기 행태로 한 조사가 대부분이었고 칫솔 및 세치제에 대한 휴대 및 구강위생용품 관리실태에 대한 구체적조사가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16-18].

이에 본 연구는 대구·경북의 일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구강보건인식 및 구강위생용품 관리실태를 비교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구강보건 교육방안 및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데 활용하고자 시행하였다.

우리나라 국가구강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또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구강건강관리의 접근성 확보를 통해 구강건강증진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모하고자, 양치시설이라는 물적 자원을 설치하여 양치환경조성을 도모하고자 학교 양치시설 설치 및 운영 사업을 수행중이다[19]. 그러나 대학교에서는 양치시설과 같은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공간이 설치되는 사업이 진행되어지고 있지 않다. 연구대상자의 구강위생용품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용하고 있는 칫솔의 수는 1개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129명(58.1%), 2개는 93명(41.9%)이었고, 사용하는 칫솔이 2개인 남성은 43명(19.4%), 여성은 50명(22.5%)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p < 0.05$ ). 전공계열은 문과인 대상자는 칫솔을 2개사용하는 대상자가 18명(8.1%)로 이과전공대상자 75명(33.8%)과 차이를 나타냈다( $p < 0.01$ ). 일반적 특성 중 대상자의 주거지 유형 중 사용하는 칫솔질 개수가 1개인 대상자 중 자택에 주거하는 대상자는 44명(19.8%), 자택에 거주하지 않는 대상자중 칫솔을 1개 사용하는 대상자는 85명(39.3%)로 차이가 나타났다( $p < 0.05$ ).

대학생들을 자신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구강위생용품을 휴대하여야 한다. 대학생의 칫솔 휴대 유·무를 조사한 결과 칫솔을 휴대하는 대상자는 104명(46.8%), 휴대하지 않는 대상자는 118명(53.2%)으로 많은 대학생

들이 실외에 있을 때 구강위생관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휴대하지 않는 대상자 중 남성은 723명(32.4%), 여성은 46명(20.7%)로 남자가 휴대하지 않는 대상자가 많았다( $p < 0.05$ ). 이는 남학생이 32.4%, 여학생이 62.1%가 휴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20]. 대학생들의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 구성 시 구강위생용품의 휴대에 대한 중요성을 남학생들에게 중점적으로 인지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구강위생용품 중 칫솔의 교체 주기는 2개월로 권장하고 있다[21].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칫솔의 교체하는 주기는 1달이 83명(37.4%)로 가장 많았으며, 3달이상이라고 답한 대상자는 75명(33.8%)였다. 구강위생을 관리하기 위한 가장 주된 용품인 칫솔은 교체주기에 따라 칫솔의 마모도와 마모율이 달라진다[22]. 교체주기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일반가정에서 사용 중인 칫솔 하나에는 수백만 내지 수십억 마리의 세균이 상존하고 있으며[23], 이를 닦은 후에 칫솔의 관리방법에 따라 세균오염이 될 수 있으며 오염된 칫솔의 사용으로 구강 내 감염되어 국소적 또는 전신적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24]. 칫솔을 살균하는 대상자는 37명(16.7%)로 나타났으며, 살균을 하는 방법으로는 살균기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16명(7.2%)로 나타났다. 또한 자택에서 주거하지 않는 대상자가 칫솔을 살균하지 않는 경우가 118명(53.2%)로 높게 나타났다( $p < 0.01$ ). 칫솔질 후 세척, 건조시킨 칫솔에서 많은 세균이 분리되는 것이 관찰되므로 세균에 오염된 칫솔의 재사용으로 인해 구강 내 세균이 확산되지 않도록 칫솔 관리의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세치제는 치면세균막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칫솔질을 하는 과정에서 치아표면을 보다 효율적으로 세정하기 위하여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구강위생용품이다[25]. 그러므로 칫솔질 시에는 치아와 구강연조직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치아표면의 치구와 음식잔사와 세균막 및 불완전하게 형성된 치석을 제거하고, 치은을 적절히 맛사지 하기 위해[26] 많은 합성물질이 사용되고 있다. 근래에는 이러한 세제가 구강 내 공해 물질을 국에 섭취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인체의 위해작용에

대하여 고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강조되고 있다 [27]. 조사결과 칫솔질할 때 사용하는 세치제의 양은 칫솔모의 2/3길이를 사용하는 대상자가 94명(42.3%), 칫솔모의 1/3길이를 사용하는 대상자는 71명(32.0%)로 조사되었다. 현재 치과위생사에 의한 칫솔질 방법 교육이 활용되고 있는 세치제 사용량에 대한 표현으로 “세치제를 칫솔모의 전체의 3분의 1정도를 문힌다”, 또는 “콩알크기만큼” 등이 권장되어지고 있다[27].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되고 있지 않으므로 세치제 사용법에 관한 교육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구강건강인식은 구강병으로 인한 동통이나 기능상실 이외에도 성별, 인종, 교육수준 등의 문화적 요인과 치료의 접근도, 구강보건의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28].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인식도에 영향을 주는 구강위생용품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성별, 전공, 주거형태, 사용하는 칫솔 수, 칫솔의 살균 유,무가 유의확률 0.05 미만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생들의 경우 구강위생용품의 관리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구강건강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부지역에 편의표본추출에 의해 선정하여 다른 지역 대학생들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점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사회경제학적 변수에 대한 다양성이 부족한 점에 한계가 있다. 향후 이에 대한 다양한 후속연구들이 더욱 심도 깊게 이루어져 본 연구에 대한 타당성을 재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5. 요약

본 연구는 대구·경북에 소재하는 대학생 222명을 대상으로 구강위생용품 관리 실태에 따른 구강건강인식도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1. 연구대상자가 사용하는 칫솔이 2개인 남성은 43명(19.4%), 여성은 50명(22.5%)이었고( $p < 0.05$ ), 전공 계열은 문과인 대상자는 칫솔을 2개사용하는 대상자가 18명(8.1%)로 이과전공대상자 75명(33.8%)으

로 차이를 나타냈다( $p < 0.01$ ).

2. 칫솔을 휴대하지 않는 대상자 중 남성은 72명(32.4%), 여성은 46명(20.7%)로 남자가 휴대하지 않는 대상자가 많았고( $p < 0.05$ ), 이과계열 대학생이 휴대하는 대상자는 83명(37.4%), 문과 대학생의 경우 21명(9.5%)으로 나타났다.
3. 구강건강인식도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3.031배였고( $p < 0.000$ ), 전공계열이 이과인 집단이 문과인 집단에 비해 2.57배였다( $p < 0.001$ ). 칫솔을 살균하는 하지 않는 대상자는 살균하는 대상자에 0.459배로 구강건강인식도가 낮았다( $p < 0.05$ ).

우리나라의 대학생의 구강보건정책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해 객관적 구강건강상태만을 지표로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구강건강인식도가 구강건강상태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학적 변수, 구강건강에 관한 변수의 효과까지 반영하는 만큼 다양한 구강건강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연구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 참 고 문 헌

- [1] 남상미, “치위생과 실습실 내원환자의 구강위생 보조용품 사용유무와 구강건강상태와의 관계,” 한국치위생학회지, 제11권, 제3호, pp.373-381, 2011.
- [2] 노은미, 백종욱, “노인의 주관적 구강건강상태가 사회적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치위생학회지, 제10권, 제4호, pp.233-239, 2010.
- [3] 장경애, 성미경, “일부 치과병원 흡연환자의 구강위생용품 이용도,” 치위생과학회지, 제8권, 제1호, pp.7-12, 2008.
- [4] 구경미, 김연화, 김인숙, 김혜진, 박영남, 구강보건 교육학, 고문사, 2008.
- [5] 이미라, “대학생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제27권, 제1호, pp.156-168, 1997.
- [6] 김수진, “일부 대학생들의 구강보건인식 및 행태 조사연구,” 대한치과위생학회, 제15권, 제2호,

- pp.89-100, 2013.
- [7] 보건복지부, “제1차(2017-2021)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2017.
- [8] 임지나, 정영란, “대학생의 구강보건행태와 교육 요구에 따른 구강보건교육 매체 개발안,” 한국치위생학회지, 제13권, 제2호, pp.323-334, 2013.
- [9] 박참빛, 박선영, 정유은, 이정화, 김혜진, 이민경, 윤현서, “일부대학생들의 구강보건지식과 구강건강관리행태에 대한 조사(보건계열학생과 비 보건계열로 구분),” 한국구강보건학회지, 제3권, 제1호, pp.41-49, 2015.
- [10] 박홍련, 문선정, “일부 성인의 주관적 구강건강 인지 특성과 구강보건 지식 및 구강보건 실천 행태의 연관성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호, pp.300-310, 2013.
- [11] 임미영, *한국 대학생의 건강증진 행위 예측 모형* 구축,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 [12] 강명신, *구강보건인식, 태도, 행동 및 지식도가 치태관련 질환발생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13] 김수진, *전라북도 일부 대학생들의 구강보건인식 및 행태조사연구* 원광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14] 이홍수, 윤영만, 이재승, 김수남, “우리나라 일부 대학생의 구강병으로 인한 활동제한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제25권, 제3호, pp.245-258, 2001.
- [15] 정기천, 이홍수, 김수남, “앤더슨 모형을 이용한 우리나라 일부 대학생의 구강진료 이용 행태에 관한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제27권, 제3호, pp.357-373, 2003.
- [16] 이선미, “일부대학생들의 구강건강인식과 그 영향요인 분석,” 한국치위생학회지, 제7권, 제1호, pp.41-51, 2007.
- [17] 박영남, 이혜진, “남자대학생에서 흡연과 구강건강에 관한 인식 및 태도 조사 연구,” 한국위생과학회지, 제13권, 제12호, pp.79-86, 2007.
- [18] 노형록, 오한나, “일부지역 대학생들의 구강보건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디지털정책학회지, 제12권, 제8호, pp.431-438, 2014.
- [19] 보건복지부, “2014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2014.
- [20] 정미애, 김민지, 하정은, “대학생의 구강관리용품 휴대여부에 따른 구강건강행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8호, pp.243-249, 2014.
- [21] 오정현, *칫솔관리방법에 따른 세균량 조사 연구*, 단국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22] 김선주, “대학생의 칫솔 마모도 평가 및 관련요인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2호, pp.609-617, 2016.
- [23] 정영기, “가정용 칫솔의 세균학적 오염도 조사 및 개선책,” 대한구강보건학회지, 제16권, 제1호, pp.147-155, 1992.
- [24] 지윤정, “Microwave를 이용한 칫솔 살균효과,” 한국치위생학회지, 제12권, 제3호, pp.641-646, 2012.
- [25] 이미옥, “치면세균막 산생성도 및 칫솔관리행동별 칫솔 세균오염도,” 한국치위생학회지, 제4권, 제2호, pp.255-263, 2004.
- [26] P. C. Kitchin and H. B. C. Robinson, “How abrasive needdentifrice be,” Dent Res, No.27, pp.501-514, 1948.
- [27] 김종배, 백대일, 문혁수, “특수선치제의 치은염 치료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제13권, 제1호, pp.17-24, 1989.
- [28] K. A. Atchison, R. E. Matthias, T. A. Dolan, J. E. Lubben, F. De Jong, S. O. Schweitzer, and S. A. Mayer-Oakes, “Comparison of oral health ratings by dentists anddentate elders,” J Public Health Dent, No.53, pp.223-230, 1993.



저 자 소 개

오 나 래(Na-Rae Oh)

정회원



- 2010년 2월 : 계명대학교 공중보건학과 석사졸업
- 2011년 3월 ~ 현재 : 대구가톨릭대학교 보건학과 박사수료
- 2011년 8월 ~ 2013년 8월 : 강원대학교 치위생학과 겸임교수
- 2013년 9월 ~ 2018년 5월 : 영남외국어대학교 치위생과 조교수

<관심분야> : 구강보건학, 예방치과학, 산업보건학

정 미 애(Mi-Ae Jeong)

종신회원



- 1999년 8월 : 단국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석사
- 2008년 2월 : 한양대학교 보건학과 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강원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관심분야> : 임상치위생학, 구강보건학, 구강보건교육